

[ 사회 ]

■ 전남대서 열린 잠 페스티벌 '자기 소개' 들어보니



전남대 도서관 앞에서 12~13일 열리고 있는 '2007 Vision Job Festival'.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삼성생명·광주은행·대한조선·CJ그룹 등 45개 기업이 참가. 3천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넌 정말 야몰어’ 피켓 들고 홍보 ‘쓰레기 퍼포먼스’에 시선 집중

“나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까?” 취업준비생들의 면접시험 준비를 돕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12일 전남대 도서관 앞에서 열린 ‘3분 자기소개 스피치 콘테스트’ 학생 취업을 돕기 위해 대학 측이 마련한 ‘2007 Vision Job Festival’ 행사 중 하나인 이 대회에 참가한 15명의 전남대 학생이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 <관련기사 20면>

최수호(26·전기공학과 4)씨는 밤새 준비했다는 피켓 3장을 들고 자신을 소개해 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피켓에는 각각 ‘백 문불어일견’(百聞不如一見), ‘넌 정말 야몰어!’ ‘2006년 전대 중앙상위위원장’ 등을 적어 자신의 활동 사항을 표현했다. 최씨는 여기에 자신감 있는 설명까지 곁들여 1위를 차지했다.

무대에 오른 최낙민(26·경영학과 4)씨는 다짜고짜 쓰레기를 바다에 던지고 주우면서 시선을 끌었다. 최씨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의 잘못됨과 좁은 행위가 옳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못할 뿐”이라며 “어려운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남자, 실천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남자, 아는 것을 실천할 줄 아는 남자”라며 자신을 소개해 3등을 차지했다.

백운용(22·역사교육과 2)씨는 ‘가·나·다·라’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결과는 공동 3위.

김지우(23·경영학과 4)씨는 장갑을 이용해 자신

을 알렸다. 흰색 장갑을 끼고 벗으며 “경북대에 교류 학생으로 가서 이 손으로 영호남 교류를 이어줬으며 인도 시골마을에서 에들을 가르치고 화장실도 짓는 봉사활동을 했다”며 재치있는 상황을 연출해 2위가 됐다.

대부분의 학생은 가만히 서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려고 노력했다. 또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에플사 최고경영자인 스티브 잡스의 활동이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명언을 말하며 삶의 목표를 말하기도 했다.

대부분이 취업을 앞둔 3·4학년들이었지만 1학년 새내기도 선배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민기(20·법학계열 1)씨는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어 소외된 자들의 느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왕따를 없애는 활동으로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했다”며 주목 받지 않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다.

심사를 맡은 ‘이미지테크 연구소’ 문지영 소장은 “발언의 구체성이 없거나 ‘죽고 싶었다’와 같은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며 “면접관에게 자신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잘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원 분야와 연관성 있어야 가산점

기발한 노래와 춤으로 관심 끌기도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조선대 누적 적립금 851억원 광주·전남 사립대학 중 최다

광주·전남지역 4년제 사립대 중 누적 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조선대(851억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선대는 연구적립금 53억원, 건축적립금 421억원, 장학적립금 300억원, 기타적립금 76억원 등 851억3천만원을 보유해 광주·전남 사립대 중 가장 많았다. 호남대는 연구적립금 110억원, 건축적립금 265억원, 장학적립금 547만원, 기타적립금 73억원 등 449억4천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초당대(301억1천만원), 대불대(282억9천만원), 광주대(102억원), 동신대(37억4천만원), 목포가톨릭대(10억여원), 호남신학대(5억8천만원), 광주여대(1억2천만원), 광신대(3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Table with 6 columns: 학교명,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 소계. Lists various universities and their accumulated funds.

오늘 조선대 총장 선거

제13대 조선대 총장 선거가 13일 대학 내 체육관에서 치러진다.

총장 선거 후보자(기호 순)는 신인현(53·사범대 과학교육학부)·이용보(60·사범대 과학교육학부)·전호중(53·의과대 의학과)·강동완(53·치과대 치의학과)·박대환(52·외국어대 독일어과)·서재홍(58·의과대 의학과) 교수 등 6명.

오전 8시부터 11시30분까지 치러지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한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 수는 교수 661표, 교직원 51표, 총학생회 36표 등 총 748표이다. 교수는 1인당 1표씩 행사하며 총학생회도 학생회 간부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이 1표씩 행사한다. 교직원 51표는 투표권이 있는 311명이 모두 투표해 각 후보별 득표수에 따라 표를 나눠 합산한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서울대 '수시 2학기' 7.38대 1

한양대 의예과 99대 1, 성균관대 약학과 101대 1

서울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 시내 대학들은 12일 2008학년도 대입 수시 2학기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예년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단위로 보면 대다수 대학에서 의학과 약학 계열과 예체능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6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서울대는 1천761명 모집에 1만3천4명이 지원해 최종 7.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대 수시 2학기 최종 경쟁률인 5.23 대 1을 뛰어넘은 것이다.

전형별로는 특기자 전형이 930명 모집에 9천889명의 지원으로 10.63

Weather forecast for September 13th,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and a map of Korea.

중학교 학력평가 실시 합의

시·도교육감협 내년부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는 12일 오후 충남 아산의 한 호텔에서 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전국의 중학교에서 학력 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2008학년도부터 중학생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시행하기로 시·도교육감이 합의했다”며 “중학생 개인의 학습능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학생 학력평가가 학력경쟁을 부추겨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 간, 시·도간 학력경쟁이 치열해

져 평준화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학력평가 결과를 학생 개인의 학력신장과 교육의 질 향상 목적으로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학년별로 평가방식이나 횟수 등을 달리하는 2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거친 끝에 중학교 1학년은 학기 초에는 진단평가, 학년 말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2·3학년은 학년 말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시험관리와 시행은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한다.

협의회는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강경 제재 방침을 밝힌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됐던 특목고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대 1, 지역균형선발 전형이 831명 모집에 3천115명의 지원으로 3.75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디자인학부 디자인 전공이 31.6대 1로 가장 높았고 서양화과가 31.4대 1, 인문계열2(공역) 28.9대 1, 인문계열1(공역) 25대 1 등이다. 의예과는 14.5대 1, 수의예과 6.42대 1, 법과대 8.09대 1, 경영대 10.4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성균관대는 1천942명 모집에 4만6천737명이 지원해 24.0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 수시 2학기

(14.82대 1)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840명을 선발하는 일반학생 전형은 3만914명이 몰려 36.8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약학과가 101.87대 1로 가장 높았다.

한양대는 790명을 모집하는 21세기 한양인 전형(서울캠퍼스)에서 수험생 2만964명의 지원으로 26.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4명 모집에 1천386명의 지원자가 몰린 의예과가 9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Haeyunjin Gyeong' (海印眞經) featuring a portrait of a woman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